

고등학교에서의 영재학급 운영

서강태 (부산 주례여고)

I. 선발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영재학급의 운영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 심사위원회와 영재학급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은 정시선발과 함께 수시선발을 실시하여 미처 참여하지 못한 영재교육 희망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영재교육신청자의 수와 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자가 선발법, 다단계 선발법, 종합적 선발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선발한 후, 지도교사의 지속적 관찰에 의해 영재성을 판별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영재교육희망 신청자의 수가 교과영역별 편성인원의 1배수(60~90명) 이내인 경우는 자가 선발법을 사용하고, 영재교육희망 신청자의 수가 교과영역별 편성인원의 1~1.5배수(90~135명)인 경우는 종합적 선발법을, 영재교육희망 신청자의 수가 교과영역별 편성인원의 1.5배수(135명) 이상인 경우는 다단계 선발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5.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재교육 희망 신청자가 영재학급 운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적 선발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장차 실시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영재교육 희망 학생의 수준 그리고 영재학급 편성 인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탐구과제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개발한 수학·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가 행여 시중에 나돌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보다 신중한 영재선발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사지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영재학급

1.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영재학급은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2. 4. 11)에서 방과 후, 방학중, 주말 또는 특별활동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방과 후, 방학중,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연구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의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기·적성 교육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영재학급 편성은 포용의 원칙을 감안하여 특정 영역의 영재성을 발굴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학년 정원의 약 15%를 선발하여 영재학급을 편성할 수도 있으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개개인의 영재성 신장 측면에서는 특수 재능 영역별 학년 정원의 1~3% 내외를 선발하여 개인별, 수준별, 사사(tutor) 형태의 교육방법도 좋을 것이다.
3.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계열이 아닌 일반교과 영역에서 영재학급을 통한 영재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을 포함시켜 교과목을 도구로 한, 학력 신장을 병행한 영재교육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가 신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Ⅲ. 교육과정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의 검사·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영재교육과정을 편성하면 효과적인 영재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2. 창의성 검사 결과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은 창의성 발휘 역시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영재학급 교육과정에 영역별 기본 지식 습득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영재학급에 편성된 연구대상 학생이 현재 2학년으로서 영재교육과정에 따른 영재교육을 충실히 받기 위해서는 졸업할 때까지인 3년이 필요하므로, 연구기간이 최소한 1년의 연장이 필요하다.

Ⅳ. 영재교육 체제

1.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을 통한 영재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교육 방법, 교육과정 등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과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을 총괄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3.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방학 중에 운영하는 영재학급은 교사의 이중적 부담과 함께 실제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재학급 운영 전담교사제의 도입이나 영재교육 지도교사에 대

한 가산점 부여 방안 마련 등의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4. 특별활동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영재학급의 운영에도 준비와 운영에 따른 교사의 부담이 크므로 같은 맥락에서 지도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영재교육이 영재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준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영재교육이 대학진학과 그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참여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시에 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입시전형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